

## “북중관계의 지정학” : 중국 지정학 전략의 ‘변화’와 대북 지정학 인식의 ‘지속’을 중심으로\*

차정미 ■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21세기 중국의 부상은 중국 스스로 자국의 힘과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정학 전략을 모색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육해통합 견지와 해양강국 건설(坚持陆海统筹, 加快建设海洋强国)”을 제기하였다. 이는 과거 대륙국가에만 머물렀던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을 탈피하고 해양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육해통합(陆海统筹)”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로서의 인식과 전략을 통합하는 중국의 새로운 지정학 담론이 되고 있다. 중국은 21세기 중엽 글로벌 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몽과 함께 이에 부합하는 자국의 지정학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지정학 전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과 담론은 과거 ‘순망치한’이라는 방어적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한반도는 여전히 강대국의 침략을 방어하는 ‘완충지대’라는 전통적 지정학 인식이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변화 속에서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대북 우호외교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은 전통 지정학의 지속을 보여주고 있다. 청조말기 중국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동방세력의 도전을 막아주는 완충지대로서 한반도를 인식하였던 중국은 이후 중국을 둘러싼 강대국경쟁에 있어서 한반도가 적대적 혹은 경쟁적 강대국의 대중국 침략을 방어하는 완충지대라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이 국력의 부상과 함께 ‘육해통합’이라는 새로운 지정학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은 전통지정학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이에 본 논문은 청조말기부터 1980년대초 중소분쟁 시기까지의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 21세기 미중경쟁 시기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지정학 전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대북 지정학 인식을 고찰한다.

\*주제어: 중국, 지정학, 육해통합(陆海统筹), 북한, 순망치한

\* 본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2038927)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E-mail: newgeneration21@daum.net)

## I. 서 론

중국건국 100주년인 2049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글로벌 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꿈은 과거 소련, 영국, 미국 등 강대국들의 지정학 전략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부활시키고 있다. 중국은 2017년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육해통합 견지와 해양강국 건설(坚持陆海统筹, 加快建设海洋强国)”을 제기하였다. 해양강국 건설 사상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부분이다. 19차 당대회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대륙에만 편향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해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양을 인식하고, 해양으로 나아가고, 해양을 경영하면서 신시대 해양강국건설의 중대사명을 추진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긴 해안선, 광범위한 해역, 풍부한 해양자원을 가진 해양대국이라는 점에서 시진핑은 해양이 민족생존변영, 국가안위와 흥망성쇠를 가르는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해양강국 건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人民日报』 2017/01/20). 그렇다면 중국의 전통적 지정학에 대한 성찰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정학적 정체성과 전략이 한반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본 논문은 중국의 강대국화 과정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적 정체성, 지전략의 변화가 중국의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에도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대륙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정체성이 여전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활력을 얻고 있는 중국의 지정학은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정세 속에서 한반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옆의 큰 산이다. 이것은 아무리 흔들어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中国是半岛边上的一座大山, 这是怎么忽悠都改变不了的).” 2018년 초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간, 북미간 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관영지인 환구시보(环球时报)가 한반도 정세변화에서의 ‘중국 패싱론, 주변화론’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적극 강조한 내용이다(『环球时报』 2018/05/02).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은 중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접해있는 대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참여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구축 협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7년간 소원했던 북중 양국관계는 2018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2019년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번째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북중 양국은 전통적 우호관계의 복원을 대내외에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외교는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

이 존재함을 부각시키면서 남북미 3자 구도를 중국이 참여하는 4자구도로 전환시켜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으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세가 중국에게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지리적 정치관계, 지리적 경제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와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이라는 한반도의 변화 속에서 오히려 주변국들의 지정학 게임은 더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정학 전략의 ‘변화’를 고찰하고, 중국의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의 시대별 내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정학 전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전통적 지정학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청조말기와 한반도 전쟁시기 중국의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지정학 인식을 고찰하고, 1960-80년대 초 중소분쟁과정에서 보여지는 중국의 대북 인식과 탈냉전 이후의 대북인식,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미중경쟁 속에서 보여지는 중국의 대북 인식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세 속에서 어떻게 전통적인 지정학이 중국의 대북 전략과 외교에 투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부상과 함께 중국 스스로 과거 전통적인 대륙국가의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서의 통합적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중국의 지정학 전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과 태도는 과거 대륙국가로서의 전통적 지정학의 틀에 영향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중국의 대북 우호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본 논문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정세 속에서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의 재인식과 이로 인해 지정학과 지정학을 모두 동원하는 지전략의 집중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미중경쟁 속에서 지속 강화될 수 있는 북중 우호관계와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중국의 지정학 전략과 한반도

### 1.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 전략의 변화 :

#### 대륙국가에서 '육해통합(陸海統籌)'으로의 新지정학 전략

지정학(geopolitics)이란 지리적 위치 관계가 정치,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한 국가의 통치기술과 전략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지정학 전략(geostrategy)이란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지리적 조건과 원칙을 활용해서 국가이익을 추구하거나 보호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Qi et al. 2006, 2).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 부상과 함께 자국의 지리적 조건을 새롭게 인식하고 강대국화에 부합하는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新지정학 전략은 과거 중국의 전통적 지정학 인식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하고 있다. 중국은 지형적 특성으로 보면 대륙과 해양을 모두 가진 복합형 국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형적인 대륙 국가이다. 중국의 대륙국경선은 2만2천km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영토의 해안선은 총 3만2천km에(대륙해안선 1만8천km, 부속도서 해안선 1만4천km)에 달하고 해역이 300만km<sup>2</sup>, 5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부속도서가 7000여개에 이른다(曹忠祥·高国力 2015, 1). 중국은 이렇듯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로서의 지형적 특징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륙복합형 국가라는 지형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랜 기간 대륙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해양은 육지와 같은 확장을 위한 열린 공간이 아니라 방어의 공간이었고 따라서 해양으로의 진출은 통제되었다(이동률 2017, 370). 중국은 넓은 해양을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은 대륙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 부상에 따라 스스로 자국의 지정학적 정체성을 변화시켜 강대국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1세기 중국의 부상은 중국 스스로 자국의 힘과 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정학을 모색하게 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강대국으로의 부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정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지정학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潘忠岐 2008; 姚全 2011; 刘大庆 外 2018). 중국은 대국이 되기 위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진정한 굴기를 위해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정학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환경을 지닌 국가이나 근대 시기 서구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지정학전략의 압박으로 인해 지정학적 사고로 국가발전 전략을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지정학 연구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潘忠岐 2008, 21-22). 중국의 부상에 따라 지정학에 대한 전통적 무관심과 논의의 부재 자체가 비판과 성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라 지정학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지정학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과거 전통적으로 대륙국가로만 인식되었던 중국의 지정학적 전통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해양강국전략’을 제시한 이후 중국의 지정학 전략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대체로 중국이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해양국가로서의 전략이나 정책이 부재하면서 해양지정학은 중국의 고려에 없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전통지정학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郭文韬 2017; 郑永年 2014; 马荣升 2013). 해륙 겸용의 국토지형을 지닌 중국이 대륙만 강조하고 해양을 소홀히 다루어왔다는 것은 해양이 갖는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인 대륙국가로서의 인식이 제국시대 중국의 쇠망을 가져왔다고 인식한다. 중국이 제국시대부터 전형적인 대륙세력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성은 청조말까지 이어지면서 서방 열강들의 침략을 당했다는 것이다. 과거 중국과 주변국의 조공체계를 기반으로 한 중화질서 속에서 ‘화이사상(華夷思想)’을 지닌 전통왕조시대의 권력자들은 광활한 영토에 만족하였고, 역대 중화제국의 주요 외부위협은 북방유목민족이었다는 점에서 해양은 줄곧 천연의 안전장벽으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중화제국들은 모두 대륙국가에 머물러 있었고 긴 해안선과 넓은 해역은 권력자들에게 개척해야할 공간으로 관심받지 못해왔다는 것이다(郭文韬 2017, 31).

이러한 대륙국가에 한정된 전통적 지정학적 정체성은 중국의 부상과 강대국화에 따라 새롭게 조명받고 있으며,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으로서의 통합적 정체성은 중국의 새로운 지정학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중국의 통합적 지정학 전략을 담은 담론이 바로 “육해통합(陆海统筹)”이다. ‘육해통합’은 대륙국가와 해양국가로서의 인식과 전략을 통합하는 중국의 새로운 지정학 담론인 것이다. 중국으로하여금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으로서의 균형을 고려하게 만든 것은 과거 치욕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찰적 인식하에 중국은 육해통합의 지정학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건국 100주년이 되는 21세기 중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상을 꿈꾸는 중국에게 지정학 전략과 담론은 국가발전전략의 중요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 2017년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육해통합을 견지하여 해양강국 건설을 가속화하자”고 강조하였다. 해양강국건설 사상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의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육해통합 전략은 과거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이 대륙국가에 치중되면서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국가로서의 인식이 취약했다는 역사적 성찰에 근거한다. 16세기 중엽 포르투갈 함대가 마카오로 자주 출몰하면서 잠식해오던 시기 중국은 강력한 해양력이 부족함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왕조의 권력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정세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륙만 안전하면 충분하다고 인식하였다. 명왕조의 통치자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해상무역이 안전을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전면적으로 금해령(禁海令)을 내렸다. 이는 중화제국의 진취적인 정신과 활력이 상실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동력들이 사라지면서 명왕조의 쇠퇴를 가져왔다(郭文韜 2017, 31). 중국 고대의 지정학적 안보전략의 핵심은 '북을 수호하고 남을 융합하고, 서쪽으로 진출하고 동쪽을 병합한다(“北守南融, 西进东合”)'는 것이었다(尹朝晖 2015, 53). 중국은 장대한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대륙국가로 인식되어 왔고, 해양지정학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었다. 중국이 해양국가로서의 구상을 밝히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郑永年 2014, 1). 중국은 대륙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해양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대륙국가로서의 전통을 견지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양국가로서의 전략을 더하는 해륙병합의 전략이다. 육해통합의 새로운 지정학 전략은 일대일로를 통해 대륙으로의 진출과 해양으로의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유럽 등 기존의 중국의 주변외교에서 상대적으로 멀게 인식되었던 국가들을 지리적으로 연계하고 지정학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2.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

어느 한 국가가 상대국에 대해 지정학적 사고와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국이 가진 지리적 위치를 정치적, 외교안보적으로 매우 중대하게 바라본다는 것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전략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지정학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시진핑 체제 출범이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지정학적 정체성과 인식은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유사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가. 즉,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정학적 정체성과 전략적 변화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특히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에도 어떠한 변화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국의 지정학 전략

변화와 함께 관심있게 조명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 북중관계에 대한 지정학 요소에 대한 빈번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분석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박광희 2006; 박창희 2007; 이희옥 외 2013). 본 논문은 육해통합의 지정학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정체성과 인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의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은 전통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을 청조말기부터 현재까지 분석하면서 육해통합의 새로운 지정학적 정체성과 전략이 부상한 2013년 시진핑 체제에도 전통적 지정학 인식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지배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지정학 전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과거 전통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의 지정학이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논의들이 부상한 바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거나, 북중관계가 보통의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sup>1)</sup> 중국의 엘리트들을 북한문제에 있어 크게 전통파와 수정파(신사고파)도 구분한다고 할 때, 북한이 군사적으로 중국의 보호막이 될 것이라는 지정학적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전통파와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전략적 관문으로서 북한의 중요성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하는 수정파간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sup>2)</sup>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내외적으로 중국에게 북한이 지전략적 가치가 아닌 지전략적 부담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것이 북중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주요하게 고려되어 왔으며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의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이 여전히 전통적 가치에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지정학 공간은 1차적으로 한반도와 아세안, 중앙아시아 지역이다.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과 남태평양 지역은 중국지정학 발전의 2차적 공간이다(潘忠岐 2008, 29). 그만큼 한반도는 중국에게 있어 높은 지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반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역 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중 하나라고 인식한다. 한반도 정세 변화는 단순히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전은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중국에게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역사적으로 강한

1) 2013년 5월 8일 화춘잉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2006년 이후 들어보지 못했던 “북중은 보통의 관계”라는 어구를 다시 언급하기도 하였다(진찬룡 2013, 126).  
 2) 중국의 전통파와 수정파에 대한 논의는 진찬룡(2013) 논문 참고.

전략적 인식의 토대 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가 아시아대륙의 동북지역에 위치하면서 북쪽으로는 대륙을 남쪽으로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고 있어, 동남해쪽은 일본열도와 서해쪽은 중국의 요동반도와 산둥반도를 접하고, 북쪽대륙으로는 중국과 동북쪽으로는 러시아를 접하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존재하여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심이라는 것이다(趙博睿 2017, 5).

한반도는 예전부터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동북아의 주요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운명이 한반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일본의 대륙진출의 꿈은 한반도를 돌파구로 하고 있었고, 중국은 이미 여러차례 한반도문제를 잘 관리하지 못해 대내적 위기를 맞이하여온 바 있다는 것이다. 근대 들어 일본은 한반도를 발판으로 하여 중국의 동북에서 전국에 이르는 침략을 단행하였다는 것이다(韓睿鼎 2018, 74). 차오중상(曹忠祥·高国力 2015)은 중국의 주변 지정학 형세가 냉전시기와 비교할 때 크게 변화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북방의 러시아, 몽고,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전환되었고,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도전과 미국의 개입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曹忠祥·高国力 2015, 2). 짜오보루이(趙博睿 2017)는 한반도가 스파이크만(Spykman)이 세계지배의 핵심인 유라시아 지배를 위한 핵심지대라고 강조한 림랜드(Rimland)의 전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지정학 대결이 집결되는 지역으로 대륙국가에게는 동쪽의 최후 방어선이고 해양세력국가에게는 육지로 진출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양대 세력 모두 이 지역을 점유하고 통제한다는 것이다. 냉전시기 한반도가 미국이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교두보의 역할이었다면 냉전이후 한반도는 주변대국들이 개입하고 관여하는 동북아 이슈들의 전장이 되고 있다(趙博睿 2017, 6). 이러한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은 '육해통합'이라는 중국의 새로운 지정학 전략에도 불구하고 근대 말과 냉전시기에 형성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역사적 사건에 따라 일시적인 부침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중국에 대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셴즈화(沈志华)는 북한이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의 안보와 이익의 집결지인 만큼 지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1960, 70년대 중소 양국이 사회주의 진영 패권을 다투던 시기 북한을 서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었다. 1966년 중국이 소련주도의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



탈하면서 북한은 중국이 의존하는 몇 동맹중의 하나로서 자국의 실리를 극대화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沈志华 2018, 127). 1970년대 미중 화해시기에도 중국은 북한이 소련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여 북한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1980년대 후반 한중 교류확대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이 소련과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한중관계를 조정하였고, 국교정상화에 있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한중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였다(차정미 2018, 30-31). 북핵문제와 김정은 체제의 대중정책 등으로 북중양국관계가 몇 년간의 정체시기를 겪기는 하였으나 중국에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북미대화 정세 속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전통우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관계회복에 속도를 내는 것은 과거 중소전쟁 시기 경쟁적 북한 껴안기와 닮아있다.

### Ⅲ. 근대기와 냉전기의 중국의 대한반도 지정학 인식

#### 1. 청조말기 중국의 대한반도 지정학 인식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한반도의 정세가 중국의 국가안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여 왔다. 당나라 시기 신라통일, 명나라의 임진왜란 개입, 청나라의 갑오전쟁 개입, 항일전쟁시기 조중군사협력과 한국전쟁시기 북한 지원 등의 역사는 중국이 한반도를 통해 중국의 안전과 발전을 지켜온 것이 역사적 기반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필요에 의해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趙博睿 2017, 5-6). 전통적으로 중국 정치엘리트의 인식에 따르면 한반도는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세력의 도전을 막아주는 완충지대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조선을 침략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일본의 목적은 단순히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조선을 중국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리상으로 볼 때 당시의 조선은 중국의 동북3성과 인접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침공하면 “순망치한(唇亡齒寒)”으로 동북3성, 즉 만주지역이 위협에 처하게 되어 그 후환이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것이다(박광희 2006, 12). 1870년 일본이 류큐를 병탄하자 청 정부는 일본의 침략기도가

조선에 미칠 것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조선은 청조의 입장에서 번속 가운데 가장 중시되는 곳이었다. 왜냐하면 조선은 청조의 발상지인 동북3성과 입술과 치아처럼 서로 의지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동북3성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청조의 통치위신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었다(박광희 2006, 13).

청조 말기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은 대외환경의 변화 속에서 순망치한의 밀접한 관계라는 인식과 함께 여전히 중국의 속방(屬邦)이라는 인식이 유지되고 있었다. 속국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의 존재가 중국의 안위에 결정적이라는 인식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81년 리홍장은 “조선의 지정학적 위치가 東三省의 방패로서 그 관계됨이 매우 중요하니... 國政은 비록 그들의 自主로 한다 해도 중국의 屬邦이라는 이름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선민 2012, 95). 중국은 조선을 外戶(외부)로 하고 조선도 중국을 장성으로 의존한다는 청의 관료 장건(張勳)의 발언 또한 중국에 있어 한반도의 중요성과 중국의 역할에 대한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위엔팅 2019, 29). 황준센(黃遵憲)의 『조선책략』 또한 청조 말 중국이 가진 한반도에 대한 속방으로서의 인식과 순망치한의 지정학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책략은 “지구상에는 더할 나위 없는 큰 나라가 있으니 이를 아라사(俄羅斯)”라고 하여 러시아의 영토확장이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주일 중국공사였던 허루장(何如璋)이 황준센에게 권하여 작성하게 된 조선책략은 “중국과 친하고(親中國), 일본과 연합하고(結日本), 미국과 연대(聯美國)하는 것”을 한국의 외교전략으로 제안한다. 당시 청조 엘리트들은 조선이 對서양 연대를 추진하되 중국의 속국이라는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미국과 조약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조선외교정책의 기본으로 삼되, 이러한 외교정책은 모두 중국과 상의하여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청조 이후 쑨원(孫文)의 인식도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는 완충지대로서 한반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쑨원은 한국인의 독립을 지지하여 이를 통해 중일양국의 완충지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쑨원의 측근인 쉬첸(徐謙) 또한 “한국인의 북국운동은 일본인의 간담을 싸늘하게 해주어 중국에 대한 침략 야심을 저지시켜줄 수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인들이 스스로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중국을 돕는 것이 된다. 중국이 그 능력을 다해서 한국인의 독립을 도와주는 것은 중한 호조의 정신을 실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의 자위방법이기도 하다”고 하였다(김승일 2010, 112). 쑨원은 1921년 비상대총통에 취임한

이후 한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즉각 승인하면서 “중한양국은 본시 형제같은 우방 이요(兄弟之邦), 입술과 치아가 서로 의존하는(脣齒相依) 형국이라, 마치 서방의 영국과 미국간의 관계”라고 강조하였다(박광희 2006, 13). 이렇듯 청말과 항일전쟁시기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은 순망치한, 즉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아내어 중국의 안위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났다. 1880년대 중국의 조선책략은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면서 러시아의 중국침투를 경계하여 한반도를 친중 국가로 유지하고자 함이었고, 이후 1990년대초 일본의 조선침략과 이어진 중국 침략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켰다.

## 2. 한반도 전쟁 전후 중국의 대한반도 지정학 인식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북중관계는 사회주의 형제국가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중국 동남쪽과 미국의 개입으로부터 오는 위협인식은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러시아, 일본 등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강대국들의 침투를 막아주는 완충지대였고, 2차대전 이후 냉전시기에도 미국, 소련 등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떨어져 있으나, 오랜기간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국안보에 분명한 위협이 되어 왔고 북한은 줄곧 미중간의 ‘완충지대’로 인식되어 왔다(李晨阳 2017, 73). 건국 직후 북중관계는 지리적 접경국으로서 항일투쟁시기의 연대와 국공내전시기의 연대,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념적 유대에 기반하여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었고, 또한 미국의 영향에 맞서 통일을 완수해야 한다는 과제를 북중 양국 모두 동시에 안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통일의 과제 속에서 중국에게 북한은 중요한 지정학적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1950년 6.25전쟁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지정학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1950년 10월 4일 한반도 전쟁 출병문제를 논하는 정치국확대회의에서 팡덕회는 미군의 ‘조선반도 점령’이 신생 중국의 운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내세우면서 출병을 역설했다(이종석 2000, 141-142). 중국지도부의 북한지원 결정은 북한을 잃으면 중국의 안위가 위협받는다라는 지정학적 인식 때문이었다. 1950년 10월 25일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중국인민정

치협상회의 상무위원회 보고에서 한반도 전쟁 참전과 관련 “조선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단지 조선문제가 아니라 타이완문제와 연계되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쟁 개입이 중국 침략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었다(히라이와 순지 2010, 32-35). 1950년 11월 4일 중국공산당과 민주당과의 합동선언에서도 “역사의 사실은 조선의 존망이 중국의 안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일찍 가르쳐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고 문이 무너지면 집이 위험하다”면서 참전이 중국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오진용 2004, 36-37).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의 적은 동방에 있다. 미 제국주의는 타이완, 남한, 일본, 필리핀에 많은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데 그 모두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고 발언하였다. 중국 참전과 관련 “중국이 출병하지 않으면 미국은 압록강 강변까지 밀고 올라와 중국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동북방이 불리해져 중국에는 동부 국경 방위군 전부를 대치토록 할 것이며 남만주 일대의 전력생산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강조하였다(박광희 2006, 16). 1954년 4월 27일 제네바회의 연설에서도 저우언라이는 “조선은 중국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면서 예로부터 순치의 관계”라면서 지리적 인접성을 강조하였다(오진용 2004, 39). 한반도 전쟁 개입 당시 중국 지도자들의 인식과 발언은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북중 양국의 지리적 관계가 참전의 주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이후 냉전시대에 한반도는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진지였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제국주의, 패권주의 세력들이 중국을 침략하는 통로였고 냉전시대에 중, 소, 미, 일 등 4대강국이 경쟁하면서 기본적으로 세력균형이 유지되었으나 냉전 이후 세력불균형이 전개되고 중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陆俊元 1996, 29). 중국에게 북한은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 두 팽창주의 세력으로부터 중국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대한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단행하면서 북중관계의 긴밀화를 지속한다. 전후 북한의 재건은 소련과 중국, 동유럽 국가들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고 중국은 소련에 비해 낮은 경제력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소련보다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단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우호외교를 강화하였다(沈志华 2018, 123). 1956년 김일성의 연안과 숙청당시 마오쩌둥은 북한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졌고, 북한이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중소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마오쩌둥은 사회주의 진영의 리더국가로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관계개선과 회유정책으로의 전환을 피하게 된

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대규모 경제기술을 지원하고 북한은 1958년부터 전개된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본 딴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주요한 협력자가 된다(沈志华 2018, 124). 중국 건국 이후 한반도 전쟁과 북중간 정치적 위기의 순간에서도 중국의 대북정책은 이렇듯 북한의 지전략적 가치로 인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지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 3. 중소분쟁기 중국의 대한반도 지정학 인식

1960년대 중소분쟁이 심화되면서 중소 양국의 경쟁적 대북 우호 외교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국내적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하였고 김일성은 중소간 균형외교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면서 1961년 소련 중국과 각각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많은 원조와 혜택을 얻었다. 중국은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적 지원과 북중간 국경문제협의를 마무리하면서 북한과의 우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노력에 의해 소련의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면서 북중관계는 더욱 강화되었으나 문혁으로 인해 북중관계의 일정한 후퇴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1969년 중소국경분쟁으로 인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가 부상하였고 1969년 9월 북한대표단의 방중 초청이 이뤄지면서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沈志华 2018, 125).

중소 분쟁시기 중국의 대북 우호외교는 강대국 경쟁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무게를 두는 중국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중소분쟁의 과정에서 전개된 대미 관계개선 과정에서 시종일관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미측에 전달하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기 위한 전략을 지속하였다. 1979년 1월 미중국교정상화로 중소 양국관계의 경쟁성과 대립성은 더욱 선명해졌고, 중국은 소련과의 경쟁 속에서 북한을 유인하기 위한 대북 우호외교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는 1973년 6.23 선언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개선 외교, 경제교류를 기대하던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부정하였던 것에서도 나타난다. 1979년 1월 덩샤오핑의 방미시 한중간 통상관계와 관련 중국의 대북 관계가 매우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전제하고 중국의 대북관계가 악화되면 소련과 북한이 밀착하기 때문에 동북아지역 전체에도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sup>3)</sup> 1979년 2월 일본을 방문한 덩

3) 외교부 외교문서 주미대사. “미.중공 회담보고.” 1979. 2. 1.

샤오핑은 또 한번 한중 양국간 경제교류에 대해 “현 상황 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중국에게 불리할 것이다. 중국은 별도의 각도에서 즉, 남북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초연한 입장에 있는 것이 북한관계에 있어 보다 좋다”고 밝혔다.<sup>4)</sup> 중소분쟁시기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강대국 경쟁관계에서 북한이 중국에 갖는 지전략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 IV. 탈냉전과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지정학 인식

### 1. 탈냉전과 북중관계의 지정학 : 지정학적 인식의 양면성

선즈화(2018)는 북중관계사에 대한 지정학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대국 중국과 소국 북한의 동맹관계를 비대칭 관계로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 자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활용하여 중국과의 관계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중소분쟁기와 마찬가지로 탈냉전기 미중 관계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냉전시기 중소분쟁 시기와는 달리 북한은 주변정세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 침투의 완충지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가치 인식에 양면이 존재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의 불안정세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가장 바라지 않는 대외환경이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실험과 도발 등으로 주변정세의 안정에 변화를 도모하여 왔다는 것은 중국에게 지전략적 부담이 되어 왔다. 주변정세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에게 북한체제의 안정과 유지는 주요한 대외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편으로 미중 양국 경쟁관계의 심화는 미국의 침투와 영향력 확대에 대한 완충지,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강화시켰다. 탈냉전기 북한은 한편으로는 주변정세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대응의 차원에서 중국에게 양면적 성격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히라이와 순지(2010, 365-366)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 스스로를 포함하여 어느 쪽의 국가도 압도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지

4) 외교부 외교문서. “외교부장관과 스노베 주한일본대사 면담요록.” 1979.2.5. 1970년대 중소관계와 중국의 대북인식 내용은 차정미(2019) 참고.

않고 그것을 전제로 자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아주 큰 상태에서 유지된 평화와 안전의 실현”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이 개혁개방이래 경제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변정세 안정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바라는 동북아 정세란 현상유지이고, 1980년대 이후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은 이러한 현상유지의 틀 속에서 전개되어온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박광희 2006, 8).<sup>5)</sup> 한반도의 현상유지 전략은 중국의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완충지대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하다. 한반도가 과거 대륙세력 진출의 방어를 위한 범퍼존이라는 인식이 존속되는 것은 중국의 육해통합 지정학 전략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전과 담론의 수준을 넘어선 전략과 전술로 실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전통적 지정학적 인식과 정체성이 여전히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의 체제 생존과 안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한편으로는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차단하는 완충지대로서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지속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변화와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접경국 북한의 체제 안정과 미국의 침투 차단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무게가 변화하면서 중국의 대북전략이 조정되고 있다.

## 2. 북핵문제와 북중관계의 지정학 : 지정학적 인식의 양면성

1990년대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소련의 해체, 중소분쟁 구조의 해소와 미소 냉전의 종식 등 세계 강대국 관계, 힘의 구조는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1992년 한중 국교정상화는 과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과 전통적 유대관계에 주요한 변화가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북중관계는 냉각되었고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약화되고 있었다. 1994년 북한은 중국측에 일방적으로 정전위원회 대표단 철수를 요구하였고, 중국도 기존의 북중간 우호가격제와 물물교환 방식의 경제관계를 현금결제 방식으로 요구하는 등 전통적 동맹관계에서 실용주의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경제난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체제 생존을 걱정하게 만들

5) 김동길과 한상준(2014, 71)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경제건설에 유리한 안정적인 주변 환경의 조성이 중국외교의 제1목표가 되었고 이 시기부터 한반도 현상유지 전략이 지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960, 70년대 중국은 문화대혁명이라는 국내적 상황과 중소분쟁이라는 대외적 환경 속에서 경제발전 보다는 정치적 전략적 목적이 대북 우호외교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었다. 1990년대 탈냉전기 북중관계는 중국이 북한의 국가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근본적인 이익으로 간주해서 대처하지만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관계였다(히라이와 순지 2010, 281-282). 히라이와 순지의 분석처럼 1990년대 초는 소련의 해체와 탈냉전의 구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전략이 약화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기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전통적 사회주의 연대와 냉전시기 완충지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의 목표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상하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외교의 핵심과제는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정세 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주변정세 안정이라는 중국의 핵심과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 2차 북핵 위기 시기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체제붕괴 위험에 따른 주변정세 불안정,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을 둘러싼 미국의 개입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가 초래하는 주변정세 불안정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었다.

1990년대 북핵위기의 지속은 탈냉전 이후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전통적 북중 유대관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으로 북한의 체제 존속의 위기가 부상하면서 주변정세 안정을 바라는 중국에게 새로운 지정학적 중요성을 환기시키게 된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대홍수로 북한은 심각한 식량부족에 직면하였고 이 상황 아래서 유일하게 북한체제를 지원한 것은 중국이었다. 북한체제의 위기가 점점 높아가고 체제 붕괴가 발생할 경우 난민유입 등 중국은 오히려 많은 부담을 강요받았기 때문이다(히라이와 순지 2010, 368-369). 주변정세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에게 접경국인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과 불안정은 주요한 외교과제였다. 북한도 자신의 체제유지를 보장해주는 최저조건(단기적 조건)을 중국과의 관계유지에서 찾고 있다(이종석 2000, 303). 결국 북한의 체제생존과 안정은 북중 양국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공유되고 있었고, 중국에게 지리적으로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북한의 생존과 안정은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이 2000년대 북핵 2차위기 이후 6자회담 의장국 역할 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한 것은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주변정세 안정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정상국가가 된다면 중국은 범동북아시아 다자안보체를 추진하여 중국의 주변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큰 전략적인 발전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진찬룡 2013, 122). 북한이 중국 동부의 심장지대와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북핵이 관리되지 않는 실수와 사고의 경우에도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는 인식도 존재하였다(趙博睿 2017, 7).



이렇듯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북핵인식은 주변정세 안정을 위한 북한의 체제 생존과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미중 강대국관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중국 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점점 더 북핵문제를 강대국 세력경쟁의 구조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학계의 논의는 대체로 중국 국가안보에 손해라는 직접적 위협인식이 2017년 북미 충돌위기 속에서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武星 2018), 대체로 강대국 세력경쟁의 구조적 위협이라는 인식이 높게 자리하고 있었다. 북핵문제의 지정학은 중국학계에서 주요한 연구분야로 다루어져 왔으며 북핵문제는 북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핵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지정학 게임이 근본 속성임을 강조하고 있다(林利民 2018; 韩睿鼎 2018; 김경일 2013). 북핵문제는 한반도 냉전구도를 탈피하려는 북한과 그 냉전구도를 유지하려는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충돌하면서 떠오른 것이라고 강조한다(김경일 2013). 남북한, 미일, 중러 등 모든 국가들이 북핵문제를 확산과 비확산의 틀로 보지 않고 지정학적 경쟁의 틀로 바라보면서 ‘6자회담’의 본질이 가면무도회와 같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林利民 2018).

이러한 지정학적 틀로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은 북핵문제의 악화와 북중관계의 후퇴 등 부정적 요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위해 북중간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王俊生 2015). 전략적 균형의 유지를 위해 또 다른 한편에서 중국 동북지역의 안정과 주변정세의 안정을 위해 북한의 위기는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북핵을 보는 지정학적 인식이다. 이렇듯 북핵문제는 지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유지시켜야 한다는 목표와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세력경쟁의 차원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중관계의 지정학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급격히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적극적인 대북제재의 동참과 대북 비판적 태도를 강화시켜 왔다. 그러나,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유관국의 냉정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을 강조하면서 주변정세 안정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북미간 군사적 충돌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주변정세 안정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한반도 정세 안정과 현상유지를 위한 대북 압박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1월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은 '2018년 4호 유엔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행에 관한 공고'를 통해 대북제재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해 북한으로의 철강 등 수출 전면금지, 원유수출 400만배럴 이하로 제한, 정제유 수출 50만배럴로 제한 등 대북 제재 동참안을 명확히 하였다 (『뉴시스』 2018/01/06). 이러한 중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위한 지원전략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주변정세 안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면서 북한을 향한 압박으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 압박 전략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형성된 한반도 평화정세와 남북,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이 거론되면서 급격히 전환된다.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6년간 한차례의 고위급 회담도 없었던 북중 양국은 2018년 3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김정은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북중정상회담을 먼저 개최하였다. 북한은 또한 2018년 6월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5월 또 다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여 두 번째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6월 20일 북중양국은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2019년 1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중 양국은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렇듯 북중 양국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6년간의 정상교류의 공백을 깨고, 단 1년만에 4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빠르게 전략적 소통과 협력, 혈맹관계를 복원해 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초기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부상했던 중국 소외론, 중국 주변화론에 대한 우려를 불시에 해소시키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의 대북 긴밀화 외교는 북미관계 개선이 초래할 수 있는 주변정세와 동북아 세력구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진행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주변정세 안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미국의 대북지원과 미북관계의 긴밀화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존재한다. 2018년 6월 1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에서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원산, 마식령 일대에 카지노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2018/06/05). 미국자본의 진출과 교류의 확대가 자칫 중국이 우려해온 한반도 전체의 친미화, 이로 인해 중국이 해양세력인 미국과 직접 국경을 접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인식이 현실화되는 양

상이다. 즉, 미국의 개입과 영향력이 북한에 확대되는 경우 미국의 대중 봉쇄와 침략에 대한 완충지로서의 북한을 잃게 된다는 위기감의 확대되는 것이다. 짜오 보루(趙博壽 2017, 7)는 북한이 중국에 대한 서양의 문화와 영향을 억제하는 진 지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해외수출과 화평굴기를 위한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한다. 북한의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제 북한의 경제적 문화적 완충지로서의 중요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정세 안정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접경국인 북한의 체제안정과 우호관계는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정세의 부상 속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북중 우호관계를 복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리적 경제관계를 지리적 정치외교관계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리적, 이념적 관계로 인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건설은 상당부분 중국이 관여하고 주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CNN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후 “북한의 최대 교역 파트너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북한투자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투자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미국 기업들에 비해 중국기업이 훨씬 더 빨리 행동을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중국 ‘일대일로’ 구상의 잠재적 참여자로서, 북한 대부분 지역의 기반시설이 모두 매우 낡아서 새롭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일대일로 구상의 중요내용이 바로 국가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경제 전환의 엔진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북경동성증권사의 수석경제학자인 장안위엔(張岸元)은 “지리적 위치, 경제체제, 시장규모, 경제발전 단계, 구축되어 있는 북중경제협력관계 등은 대체할 수도 없고 따라잡을 수도 없는 우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였다(『上观新闻』 2018/06/12). 중국은 특히 북한개혁개방이 가져다줄 동북3성지역의 경제 이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낙후된 경제상황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3성의 GDP성장률은 점차 전국 평균성장률과 격차가 벌어지면서 급격히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2017년 중국의 성장률이 6.9%인데 비해, 헤이룽장 6.4%, 지린 5.3, 랴오닝 4.3%로 낙후되어 있다(『凤凰网财经』 2018/04/26). 북중간 지리적 인접성과 접경지역의 경제 성장 문제는 향후 북중관계 긴밀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런민대 국제전략연구센터의 청샤오허 부주임은 “동북부 지역은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로 지난 수년간 느리고 취약한 경제발전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철도 연결 작업은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다 줄 수 있다”고 했다(『머니투데이』 2018/06/07).

중국의 일대일로 또한 향후 북한 개혁개방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주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은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에서 제기한 구상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글로벌 사업으로 2017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회의’에는 39개국 정상과 100여개국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일대일로는 과거 ‘실크로드경제권(絲綢之路經濟帶)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海上絲綢之路)’를 합친 전략 구상으로, 세계 44억명의 인구(세계인구의 63%)와 GDP규모는 21조달러(세계 29%)의 중국 주도의 거대한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것이다(『人民網』 2014/10/10). 일대일로 구상은 단순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 구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의 국가들을 중국의 경제권에 포함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정학적 목표를 가진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대일로 구상이 초기에는 유럽 진출의 구상이었는지 모르나 이후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과 지경학의 복합적 구상으로 자리하면서 철도연결 로선에 위치한 수십개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中國共產黨新聞』 2017/12/04). 일대일로는 향후 북중 지정학 관계를 강화하는 주요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짜오보루는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면서 북한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필수적 경로임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을 중국 경제발전 범위에 포함시켜 동북아 경제협력에 참여토록 하고 북한과 중국의 동북지역이 협력하면 공동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동북아다자안보 구축의 중요한 기회가 되고 중국의 동북아지역은 장기적으로 안정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다(趙博睿 2017, 7-8). 중국은 2015년 ‘일대일로’ 구상에 북한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화답하진 않았으나, 2017년 5월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중국이 북한을 초청하고 북한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和訊新聞』 2017/05/09). 이는 추후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확대하고자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중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유리한 지역질서의 수립이라는 지정학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향후 대북 긴밀화 외교에 있어 경제적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히라이와 슌지(2010, 284-285)는 탈냉전기 북중관계가 동맹관계에서 실용주의적 협력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이 국력을 강화시켜 가면서 동아

시아 지역에서 미국과의 패권적 경쟁에 나설 경우 북중관계의 유착은 또 다른 차원의 내구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미중 경쟁이 첨예화되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가 확대될 경우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지전략적 가치는 다시금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탈냉전기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은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정세 안정이라는 틀에 묶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히라이와 순지의 분석처럼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중 경쟁관계가 첨예화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인해 미국의 대북 영향력과 개입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은 중국에게 북한의 지전략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중국의 대북 긴밀화 외교를 더욱 강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

## V. 결론 : 중국의 강대국화와 지정학 전략의 변화, 그리고 대북 지정학의 지속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 부상과 함께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강대국화를 위한 새로운 지정학적 정체성과 전략을 수립해 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은 냉전시기의 ‘순망치한’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짜오보루는 북핵문제로 인해 북한의 지정학 가치와 전략이 일정한 조정을 거친긴 하였으나 중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역설한다. 기술의 발달로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긴 하였으나 ‘사고의 관상’으로 인해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라는 중국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趙博 2017, 7). 김정일(2013)은 한반도의 통일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여 한반도의 ‘지정적(地政的) 의미’가 약화되고 ‘지경적(地頸的) 의미’가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협력과 윈윈하는 지경학적 접근으로 지난 시기의 지정학적 요소를 극복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전개하는 우호외교와 북중혈맹관계의 복원 노력은 비핵화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지전략적 의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경적 의미의 부각이 오히려 지정학적 의미와 결합되어 강대국간 지정학 대결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 이후 보여진 중국의 대북 강경 태도를 일부에서 중국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 북중관계의 근본적 전환으로 해

석한 것은 중국이 북한, 한반도에 부여하는 지정학적 가치가 타협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서 중국의 대북 긴밀화외교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작용으로 주변 강대국간의 영향력 경쟁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지정학 경쟁은 중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북핵위기 시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미일동맹강화 등이 지난 10년간의 동북아 지정학 경쟁을 촉발하였다면, 한반도 평화국면에서는 중국의 북중동맹 강화와 대북 경제지원 확대라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복합전략이 동북아에서의 지정학 경쟁을 주도하게 될 수 있다.

중국은 향후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한 적극적 개입을 지속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적으로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역할을 축소시키고자 하면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전개하고, 지경학적으로는 일대일로라는 유라시아 경제지도에 북한을 포함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지리적 경제관계의 긴밀화를 추진해갈 것이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매우 적극적으로 대북 경제관여를 확대해갈 것이다. 중국은 북핵문제 지속 시에도 북한이 중국에 대한 우의와 비핵화 진전이라는 일정한 정치적 조건만 마련되면 원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한반도 문제의 특수한 복잡성 때문에 경제이익은 정치적 전략적 고려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韓耨鼎 2018, 76). 지정학 경쟁의 우위를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러 양국의 의견일치를 지속적으로 한반도 영향력 확보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사드배치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개입을 러시아 극동지역의 안보에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韓耨鼎 2018, 76). 따라서 중국은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경제적, 외교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대북 우호외교를 전개해 갈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을 시기별로 비교 분석하면서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평화정세라는 대내외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완충지대로서, 요충지로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대북 긴밀화 외교를 지속해 왔음에 주목하였다. 탈냉전 이후 이념적 구조적 균열의 완화로 냉전시기와 같은 의미의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는 약화되었을 수 있으나, 주변 정세 안정과 강대국 관계에서의 영향력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냉전기의 중소분쟁시기에도 탈냉전기의 미중패권경쟁 시대에도 여전히 중국에게 주요한 지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반도 평화정세와 미북 관계 개

선의 기대 속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된 중국의 대북 긴밀화 외교는 동북아 영향력 경쟁에서 북한이 갖는 지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평화정세 속에서 전개될 수 있는 지정학 경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의 지속과 미중간 지정학 경쟁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지정학적 비관론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강대국간 지정학 경쟁의 틀을 뛰어넘는 협력을 이끌 어갈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 지정학 인식과 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논의에 정책적 참고를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 하였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오진용. 2004.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서울: 나남.
- 이종석. 2000. 『북한-중국관계 : 1945-2000』. 서울: 중심.
- 히라이와순지. 2010. 『북한-중국관계 60년』. 서울: 선인.
- 김경일. 2013.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와 중국." 『통일과 평화』 5(2), 3-25.
- 김동길, 한상준. 2014. "제2의 해방: 북한자주화와 1956-57년의 중국-북한관계." 『국가전략』 20 (2), 69-108.
- 김선민. 2012.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재인식 ; "외국"과 "속국"의 사이 -正史를 통해 본 청의 조선 인식." 『사림』 41, 65-100.
- 김승일. 2010. "3.1독립운동 전후 쑨원의 한국인식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101-128.
- 박광희. 2006.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에 대한 중국 정치엘리트의 전통적 인식." 『신아세아』 13(3), 7-22.
- 박종훈. 2012. "청(淸) 사신(使臣) 아극돈(阿克敦)의 조선(朝鮮) 인식(認識) - 『봉사도(奉使圖)』와 관련하여." 『온지논총』 31, 149-192.
- 박창희. 2007. "지정학적 이익 변화와 북중동맹관계: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중소연구』 31(1), 27-57.
- 위엔팅. 2019. "1880년대 조선에 파견된 청 관료의 조선 인식: 속국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62.
- 이동률. 2017. "시진핑 정부 해양강국구상의 지정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57(2), 367-401.
- 이호철. 2017.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 『한국과 국제정치』 33(1), 39-61.
- 지상현. 2013. "반도의 숙명: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검증." 『국토지리학회지』 47(3), 291-301.
- 지상현. 2016. "갈등과 협력의 동북아 지정학 : 동향과 과제." 『국토지리학회지』 50(3), 295-314.
- 진찬룡. 2013.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정책의 진화." 『전략연구』 2013년 6월호, 117-127.
- 차정미. 2018. "1980년대 한중관계 태동기, 정부-비정부 협력외교의 발전과정." 『국제정치논총』 58(1), 7-54.
- \_\_\_\_\_. 2019. "한중관계 초기발전과 기업의 외교적 역할: 1979-1986년 외교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2(4), 53-86.



## 영문 및 기타 언어 자료

- Qi, Xu; Erickson, Andrew S.; Goldstein, Lyle J. 2006. “Maritime Geostrategy and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Navy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Naval War College Review* 59 (4), 1-22.
- 陆俊元. 1996. “从地缘战略看朝鲜半岛的安全价值.” 『当代亚太』 1996年04期.
- 曹忠祥, 高国力. 2015. “我国陆海统筹发展的战略内涵、思路与对策.” 『中国软科学』 2015年第2期.
- 刘大庆, 白玲, 张宏, 祁笃刚, 焦昆, 吴斌. 2018. “全球地缘政治格局演变的动力机制——基于变量与变量关系的解析.” 『地理研究』 2018年02期.
- 林利民. 2018. “朝鲜核问题的战略本质:反扩散还是地缘政治博弈?” 『现代国际关系』 2018年02期.
- 韩睿鼎. 2018. “朝核问题演进的地缘政治性质及对策.” 『理论视野』 2018年01期.
- 沈志华. 2018. “中朝关系史研究中的几个重要问题.” 『清华大学学报』 2018年01期.
- 王生, 张雪. 2018. “从东北亚地区安全框架的结构性矛盾看朝核问题.” 『当代世界与社会主义』 2018年01期.
- 冯玉军. 2018. “俄罗斯围绕“朝核问题”的政策目标及挑战.” 『东北亚学刊』 2018年01期.
- 武星. 2018. “新时期朝鲜拥核战略的地缘政治效应及中国应对简.” 『东疆学刊』 2018年02期.
- 赵博睿. 2017. “地缘政治视角下的朝鲜半岛与中国国家安全.” 『荆楚学术』 2017年第03期.
- 王俊生. 2016. “中朝“特殊关系”的逻辑:复杂战略平衡的产物.” 『东北亚论坛』 2016年01期.
- 杨希雨. 2018. “朝鲜半岛的“安全困境”及其出路.” 『国际问题研究』 2018年01期.
- 吴日强. 2018. “朝美双向威逼与朝核危机的出路.” 『现代国际关系』 2018年第02期.
- 郑永年. 2014. “中国的海洋地缘政治与陆地地缘政治.” 『外交评论』 2014年第1期.
- 姚全. 2011. “新世纪世界地缘政治形势特点与中国的地缘战略选择”, 『襄樊学院学报』 第32卷第7期.
- 邵永灵, 时殷弘. 2000. “近代欧洲陆海复合国家的命运与当代中国的选择”, 『世界经济与政治』, 2000年10期.
- 尹朝晖. 2013. “中国古代传统地缘政治的思想评析与现代启示.” 『太平洋学报』 第21卷第2期.

- 楊國楨. 2009. “關於中國海洋史研究的理論思考,” 『海洋文化學刊』 2009年7期.
- 潘忠岐. 2008. “地缘学的发展与中国的地缘战略:一种分析框架.” 『国际政治研究』 2008年第2期.
- 李晓, 李俊久. 2015. “一带一路”与中国地缘政治经济战略的重构. 『世界经济与政治』 2015年10期 .
- 毛汉英. 2014. 中国周边地缘政治与地缘经济格局和对策. 『地理科学进展』 . 2014年03期.
- 郑永年. 2014. 中国的海洋地缘政治与陆地地缘政治. 『外交评论』 2014年第1期.
- 黄仁伟. 2010. “地缘理论演变与中国和平发展道路.” 『现代国际关系』 . 2010年 1期.
- 王芳. 2012. “对实施陆海统筹的认识和思考.” 『中国发展』 2012年03期.
- 曹忠祥, 高国力. 2015.“我国陆海统筹发展的战略内涵、思路与对策.” 『中国软科学』 2015年02期
- 郭文韬. “中国地缘战略变迁的历史教训——寻求陆海统筹的必要性” 『南方论刊』 2017年05期.

#### 인터넷 및 기타 자료

- “중국, 대북 철강 수출 전면금지…원유·정제유도 제한.” 『뉴시스』 2018/01/0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06\\_0000195974&cID=101011&pID=10100\(2019/03/04 검색\)](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06_0000195974&cID=101011&pID=10100(2019/03/04 검색)).
- “김정은, 원산 카지노에 美 투자해달라.” 『동아일보』 2018/06/05, <http://news.donga.com/3/all/20180604/90404755/1> (2019/03/04 검색).
- “美 ‘북한식 마셜플랜’ vs 中 ‘일대일로’…경제 주도권 싸움.” 『머니투데이』 2018/06/07,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60612147687012> (2019/03/07 검색).
- “中国曾邀请朝鲜成为“一带一路”成员? 外交部这样说” 『和讯新闻』 2017/05/09, <http://news.hexun.com/2017-05-09/189120686.html> (2019/03/02 검색)
- “海洋强国建设助推实现中国-深入学习贯彻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人民日报』 2017/11/20. <http://www.rmlt.com.cn/2017/1120/503400.shtml> (2019/03/08 검색).
- “习近平“一带一路”构想战略意义深远” 『人民网』 2014/10/10, [http://politics.people.com.cn/n/2014/1010/c1001-25805422.html\(2019/02/21 검색\)](http://politics.people.com.cn/n/2014/1010/c1001-25805422.html(2019/02/21 검색)).
- “朝鲜, 下一个投资热土.” 『上观新闻』 2018/06/12, <https://www.jfdaily.com/>

news/detail?id=92805 (2019/02/16 검색).

“中国是半岛边上的一座大山, 这是怎么忽悠都改变不了的” 『环球时报』 2018/05/02,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5/11958863.html>(2019/02/16 검색).

“朝鲜都要开放了, 东北经济还有救吗?” 『凤凰网财经』 2018/04/26, [http://finance.](http://finance.ifeng.com/a/20180426/16205797_0.shtml)

[ifeng.com/a/20180426/16205797\\_0.shtml](http://finance.ifeng.com/a/20180426/16205797_0.shtml) (2019/02/22 검색).

Abstract

## **China's Geopolitical Perceptions toward North Korea : China's New Geopolitical Grand Strategy and its Old Geopolitical Perceptions on North Korea**

Cha, Jung-Mi ■ Yonsei University

China's rise in the 21st century is prompting China itself to seek a new geopolitical strategy that conforms to its power and status. In its report to the 19th Party Congress in 2017, China raised "the view of land and sea integ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maritime powerhouse." The move is aimed at breaking away from China's geopolitical perception, which has stayed only in continental countries in the past, and strengthening its identity as a maritime state. This "land and sea integration" has become China's new geopolitics discourse that integrates perceptions and strategies as continental and maritime states. Along with China's dream of becoming a global power in the middle of the 21st century, China is creating a corresponding geopolitical identity for itself.

However, despite these changes in China's geopolitical strategy, geopolitical perceptions and discourse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not escaped the defensive discourse of "pure" in the past. Despite the ongoing peac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2018 PyeongChang Olympics, the traditional geopolitical perce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precipient zone" still defends the invasion of the powerful nation is working for China. Amid the changing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is once again evoking the strategic importance of North Korea and strengthening friendly diplomacy with the North, which shows the continuation of traditional geopolitics. China, which recognized the Korean Peninsula as a buffer zone to fend off the challenges of Eastern powers seeking to advance to the Chinese continent at the end of the Qing Dynasty, has maintained the view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a buffer zone to defend the invasion of China by hostile or

competitive powers in the competition over China. This paper notes that despite China's search for a new geopolitical identity of "land and sea integration" with the rise of its national power, its geopolitical perce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till remains beyond traditional geopolitics.

Key Words: China, Geopolitics, Strategy of Land and Sea integration(Luhaitongchou), North Korea

